



뉴욕의 ‘구석구석’

브루클린이 인기 목적이 되고 있다. 옛날 옛적 브루클린은 뉴욕과 시카고에 이은 대도시였을뿐만 아니라 노예해방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브루클린 다운타운의 웅장한 건축물, 은행가와 대형 호텔은 뉴욕 월스트리트에 필적할만한 규모다. 다운타운 풀턴스트리트의 상가(Fulton Mall)에는 메이시 백화점을 비롯, 조지오 아르마니, H&M, 그리고 세이크 색까지 자리를 잡았다. 럭셔리 콘도 건축으로 뉴욕시의 스카이라인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위용있게 서있는 브루클린 다임 세이빙스 뱅크는 마치 토마의 판테온에 들어간듯한 스펙터클한 인테리어를 자랑한다.

모모푸쿠 데이빗 장이 맨해튼에 불러온 일본라멘 바람이 브루클린까지 불어왔다. 본드 스트리트에 자리한 원조 라멘 ‘간소(Ganso)’는 맨해튼 토토(Toto) 라멘, 잇푸도(Ippudo) 라멘의 허세와 열기 대신 정통 라멘의 맛을 볼 수 있다. 날개달린 바삭한 만두는 필수.

더필드 스트리트는 노예해방운동가들의 아지트였다. 노예들을 비밀리에 도피시켰던 네트워크 ‘언더그라운드 레일(Underground Rail)’의 본산. 그러나 랜드마크로 지정되지 못해 지금부터 크 호텔의 거리로 변하고 있다. 뮤지엄

이 세워질 계획이었던 하우스는 철거일보 직전이다. 윈도우에 노예 70여명을 해방시키는데 수훈을 세운 영웅, 흑인 여성 해리엇 터브만의 사진이 처량하다.

그 흔적을 따라 가다 보면, 공사 크레인 앞에서 교회 옆에 기대고 있는 ‘풍전등화’ 중국 만두집 ‘골든 프라이드 덩플링’이 보인다. 돼지고기 부추만두와 짜장면... 30년 전 가격같지만, 맛있는 집. 브루클린의 숨은 보석이다.

지금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는 고 백남준의 회고전 ‘Becoming Robot’가 열리고 있다. 만두집 근처 메트로테크 센터에 영구설치된 백남준의 TV 모니터 429대 모자이크 설치작이 스펙터를 한다. 강익중 작가께서 알려준 ‘브루클린의 숨은 보석’이다.

센트럴파크가 ‘맨해튼의 오아시스’라면, 프로스펙트 파크는 ‘브루클린의 오아시스’.

센트럴파크를 디자인한 프레데릭 로 울스테드(칼버트 보와 함께)그리고가 더 사랑했다는 공원, 프로스펙트파크 입구의 그랜드 아미 플라자는 웅장한 개선문과 조각이 압권이다. 말탄 링컨 부조는 누가 제작했고, 모자 속에 무엇이? JFK 두상, 그리고 여름엔 시원한 조각 분수대도 자리해 있다.

뉴욕도 잘 모르는 뉴욕 프라이빗 투어 컬빗 프리미엄 투어<CulBeat Premium Tour>

뉴욕일보가 매주 금요일자로 발행하는 C-섹션 ‘비즈니스 & 라이프’는 ‘아이 러브 뉴욕- 뉴욕의 구석구석’을 연재하고 있다.

이 연재는 뉴욕의 문화와 여행 정보 웹사이트 ‘뉴욕컬처비트(www.NYCultureBeat.com, 대표 박숙희)’가 제공하는 프라이빗 투어 ‘컬빗 프리미엄 투어(CulBeat Premium Tour)’의 도움을 받아 연재가 가능해졌다.

‘컬빗 프리미엄 투어’는 한인들은 물론 뉴욕

들도 잘 모르는 뉴욕의 숨은 명소와 맛집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투어는 뽀빠이 스케줄로 명소를 ‘주마간산식으로 관광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뉴욕의 숨은 명소를 ‘느긋하게 음미하는 여행’을 하고 싶은 한인들을 초대한다.

뉴욕 인근에 살면서 뉴욕의 참맛과 멋을 찾고 싶은 독자들, 뉴욕에 여러 차례 여행 와서 색다른 장소를 탐험하고 싶은 한인들에게 추천하는 투어 프로그램이다.

가이드는 뉴욕 한인언론에서 문화/레저 담당 기자를 오래 지낸 박숙희 뉴욕컬처비트 대표가 맡으며, 투어 인원은 5명으로 제한한다. 박숙희 대표는 브루클린 하이츠에서 12년 이상 살고 있다.

박숙희 대표는 “컬빗 프리미엄 투어는 기존 로컬 여행사에서 커버하지 않는 뉴욕의 매력을 맛집과 함께 탐험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만 남는 여행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두고 남는 시간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고 말한다.

② 브루클린의 숨은 보석 투어 역사 · 건축 · 미술 & 페미니스트들의 발자취 브루클린 다운타운 + 프로스펙트 하이츠 + 브루클린 뮤지엄



브루클린 다임 세이빙스 뱅크



백남준의 TV 모니터 429대 모자이크 설치작



‘풍전등화’ 중국 만두집

테이션의 건축회사 맥킵, 미드 & 화이트가 설계한 브루클린뮤지엄은 규모 면에서 메트로폴리탄뮤지엄 다음이다. 키스 해러링, 타카시 무라카미, 아이 웨이에서 장 폴 고티까지 특별전이 열린 브루클린뮤지엄에선 지금 하이힐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특별전 ‘킬러 힐스(Killer Heels)’가 열리고 있다.

이집트 미술 컬렉션을 기부하는 브루클린뮤지엄은 여성 미술가들을 위한 갤러리도 보유하고 있다. 그 안에 오랫동안 방랑했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주디 시카고의 걸작 ‘디너 파티(Dinner Party)’가 설치되어 있다.

▶투어 날짜: 12월26일(금) 오후 1시 *2015년 1월22일(목) 오후 1시 *5인 선착순 예약 마감, 2인 이상 신청시 진행. *투어 날짜는 신청자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 및 예약: NYCultureBeat@gmail.com



도서관 정문

그랜드 아미 플라자의 모던한 건물은 LA 게티 센터의 건축가 리처드 마이

어의 럭셔리 콘도. 한 채에 얼마나할까? 그와 대조적으로 이집트 문양을 본



브루클린뮤지엄

단 도서관 정문이 빛난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걸작 펜스

H MART
A KOREAN TRADITION MADE IN AMERICA. SINCE 1982.

교통사고
박응범 변호사
무료상담 · 최대보상
917.562.9143



아연 흡수율을 높이는
프로지(Pro-Z)
646-363-7295 / 718-961-1538

since 1990 **감미옥**
감미옥이 최가냉면의 시작과 함께합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동절기 냉면 50% 세일”

냉정이 필요할때 살얼음 동동동 냉면
열정이 필요할때 김이 모락모락 우동
최가냉면엔 당신이 원하는 맛이 있다

최가냉면

* 시즌 메뉴 · 우동과 함께 유부초밥, 돈까스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 팁을 없앤 셀프 서비스로 빠르고 저렴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CHOIGA NOODLE
110 BROAD AVE. 5-9, PALISADES PARK, NJ 07650 TEL_201.945.6300